

1월 24일(월) / 시 142-144

▶ **내용요약** : 시인은 자신의 원통 즉 자신의 우환을 간구하며 악인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 울무를 숨긴 것을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고백한다. 그는 좌우에서 자신의 피난처를 찾을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피난처 이시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건지시고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142편). 다윗은 여호와께 진실과 의로 응답하시고 의인이 없으니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그는 다윗은 여호와께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아뢰며 주를 사모하며 자신에게 속히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길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여호와와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한다(143편). 다윗은 여호와를 반석, 사랑, 요새와 방패라고 고백하며 그림자 같은 자신을 생각하심에 감사한다. 그는 여호와께 악인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한다(144편)

▶ **질문** : 다윗은 누구를 요새요 반석이라고 했는가?

▶ **생각하기** :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로 표현한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기에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소중하다. 당신이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1월 27일(목) / 아 5-8

▶ **내용요약** :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를 자신의 동산에 초대하여 연회를 즐길 것을 노래하며 자신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사랑하는 자는 이미 떠나서 자신의 심적 고통을 전달한다. 그는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그의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움이 뛰어난을 묘사한다(아 5장). 솔로몬은 자신을 떠난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그는 사랑하는 자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짐승과 과일의 비교하며 노래하고 하나 뿐인 사랑하는 자는 칭찬과 당당한 자라고 말하며 돌아올 것을 간절하게 노래한다(아 6장).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고백을 계속 해서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자신이 사모하고 함께 유수할 것을 고백한다(아 7장). 솔로몬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여 그녀가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라고 말한다. 솔로몬은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고 말하며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 사슴 같다고 말한다.

▶ **질문** : 솔로몬이 사랑하는 자로 표현한 사람은 누구인가?

▶ **생각하기** :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했다. 나는 그것을 이는가?

1월 30일(일) / 사 26-28

▶ **내용요약** : 이사야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여호와께서 유다는 구원을 하고 평강을 주실 것을 선포한다. 그는 심판하시는 날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와 백성들의 모습을 전달하고 주의 구원을 통해 세계가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을 선포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에 산고의 부르짖음 같이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것을 말한다(사 26장).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에 리워야단을 죽이시고 그 날에 너희는 포도원지기 여호와를 인하여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고 말한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견책하고 견고한 석은은 확무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사

1월 25일(화) / 시 145-147

▶ **내용요약** : 시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의 이름과 행사를 찬양하고 선포할 것을 고백한다. 그는 주의 위엄과 권능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호와를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많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위엄과 영원한 그의 나라를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한다(145편). 시인은 여호와를 평생 찬양할 것이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을 것을 선포한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자들을 돌보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시다고 선포한다(시 146편). 시인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는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자연과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포한다(147편)

▶ **질문** : 여호와와는 어떤 자들을 붙드신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자연현상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현상이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시기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신다. 당신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월 28일(금) / 사 19-22

▶ **내용요약** :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애굽 즉 이집트를 치실 것을 선포하며 그 결과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하고 이집트 풍요의 근원 강의 기능이 쇠할 것과 이집트의 모사의 책략이 우둔해 질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비틀거릴 것이며 그 심판의 날에 유다가 이집트의 두려움이 되고 애굽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사 19장). 이 사야는 아수르 사르곤이 아스돗을 칠 때 여호와께 애굽의 멸망의 수치를 벌거벗은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전하라는 말씀을 받는다(사 20장). 이사야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이 해변 광야에 여호와와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두마에 관해 파수꾼을 상징화하여 밤이 올 것과 아라비아에 대해 경고하신다. 또한 그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해 경고하며 여호와와 심판으로 통곡의 날이 올 것을 선포한다(사 22장).

▶ **질문** : 여호와와는 힐기야의 아들 누구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정권을 준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제국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그것은 언젠가 사람과 제국들은 불과 같이 사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다(사 27장). 이사야는 예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고 그 날에 남은 자신의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붙잡히게 될 것을 선포하며 한 돌을 시몬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고 말하고 정의로 다스릴 것을 선포하며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한다. 이사야는 여호와와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한다(사 28장)

1월 26일(수) / 시 148-150

▶ **내용요약** : 시인은 하늘과 천사와 해와 달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포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힌다. 그는 또한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왕과 고관과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한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밝힌다(시 148편). 시인은 성도의 모임 즉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 찬송 하되 새 노래, 춤과 수금으로 찬송하라고 말한다. 그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요청하며 여호와는 모든 민족을 판결하시는 분임을 선포한다(149편). 시인은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여호와의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되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통소 즉 모든 악기로 찬송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한다(150편)

▶ **질문** :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는가?

▶ **생각하기** : 찬양,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찬양의 대상이 되고자 한다. 성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한다. 나는 현재 겸손한 사람인가?

1월 29일(토) / 사 23-25

▶ **내용요약** : 이사야는 과거 해상무역으로 부유했던 두로와 시돈이 부끄러워 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영화를 헛되게 할 것이며 아수르가 그곳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70년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을 선포한다(사 23장).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할 것이며 향락을 즐기던 것이 황무하게 될 것이고 땅의 주민들이 울무에 걸리게 되고 그날에 땅의 왕들을 벌 하실 것을 선포한다(사 24장). 이사야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그는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고 강한 민족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풀어 회복할 것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모압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포한다(25장)

▶ **질문** : 이사야는 두로가 몇 년 동안 잊어버린바 될 것이라고 했는가?

▶ **생각하기** : 하루 앞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막연히 우리의 현재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그렇지 않고 예기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있게 한다는 것을 잘 안다. 나는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 **질문** : 이사야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 **생각하기** : 지혜로운 삶, 그것은 우리가 늘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여호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